

# ‘화합과 상생’의 등 밝혔다

## 서울시청 앞 봉축상징물 점등... 전국 곳곳 연등 물결



서울시청 광장을 밝힌 ‘화합과 상생’의 등. 사진=박재완 기자

### 문광부 ‘연등축제 지원’ 나서

#### 옥외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홍보 계획 마련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유인촌)가 부처님오신날 홍보지원 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문광부 중앙실(실장 광영진)은 최근 문광부 국문 홈페이지(mcs.go.kr) 및 영문사이트(Korea.net)에 연등축제를 알리는 배너를 설치하고 다양한 홍보지원에 나섰다. 중앙실은 4월 28일부터 고속터미널 상가옥상, 청계천 광장, 서울신문사, 테헤란로 등 서울 시내 옥외전광판 동영상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광부TV에 17분 동안의 동영상 홍보물을 올리는 한편, KTV(한국정재방송)에 봉축관련 코너들을 기획하고 국제위성방송인 아

리랑TV를 통해서도 연등축제를 다양하게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Korea Policy Review>를 1만4천여부 발행, 재외 160개국 공관에 연등축제를 소개하고, <코리아플러스>를 통해서도 기사와 광고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문광부가 주도적으로 봉축 홍보 지원 계획을 마련한 것은 연등축제를 한국의 고유한 전통축제로 인정할 것”이라며 “향후 연등축제의 무형문화재 등재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화합과 상생의 등(燈)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을 밝힙시다.”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4월 21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봉축상징물 점등을 시작으로 서막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은 봉축위원회 위원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고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한 불자 및 서울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지관 스님은 “나라 발전과 서울시의 융성을 위한 축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르치로 평화적 통일과 나라 발전을 이루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항상 편안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밝힐 ‘화합과 상생의 등’은 분열과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와 인류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및 국민통합을 물론 인류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등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전통등 제작 방식으로 만든 한지 대형등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국보 제29호 석덕대왕 신종과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을 형상화하였으며, 그 위에 전통 문양을 채

### 기독교 천주교 대표단 “부처님오신날 축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권오성 총무, KNCC 종교간 대화위원장 김광준 신부, 기독교장로회 선교국장 정해동 목사, 기독교감리회 선교국장 신복현 목사 등 대표단은 4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 부처님오신날을 미리 축하했다. KNCC 권오성 총무는 “종교간 이해와 교류를 위해 직접 방문해 축하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불교와 기독교가 발전적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모든 종교는 다르지만 근본은 하나이기에 만나서 반갑다”면서, 연등축제와 봉축법요식 등을 소개했다. 권 총무는 “이번 부처님오신날부터는 KNCC 소속 성직자들도 전국의 사찰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 오신 뜻을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권 총무는 또 “KNCC는 평화와 통일은 물론 환경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며 “특히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파괴하는 운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조계사에 나투신 황룡사 진신사리

#### 대웅전서 이운식 친견대법회 봉행



황룡사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포교원장 혜충, 교육원장 철화 스님(오른쪽부터).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사주지 원학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 수장고에 보관됐던 사리는 이날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 ‘법보’ 전 전시

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운됐다.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한 사리친견대법회에서 지관 스님은 “황룡사지 출토 사리는 부처님 열반 후 세계 각처로 나눠 봉안됐던 진신사리 중 하나로, 643년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모셔와 황룡사 구층목탑에 봉안했던 사리”라며 “부처님처럼 맑고 향기롭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참배하자”고 설법했다. 한편 진신사리는 사리친견대법회가 열린 23일 당일만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배가 가능하다. 이후 4월 28일~6월 29일 동안은 불교중앙박물관에 전시되며, 전시 후에는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아간다.

조동섭 기자



### 간다라·티베트 불교미술 한눈에

#### 천태종 소장 해외유물展

천태종 관문사 성보박물관(관장 세운)은 5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봉축 기념 특별전 ‘천태종 소장 해외 유물展-간다라·티베트 불교미술’전을 개최한다. 관문사성보박물관은 국립박물관을 제외하고 간다라 유물을 유일하게 소장한 곳. 이번 특별전에는 인도 라자코하 교외의 동굴에서 인드라의 예배를 받는 광경을 새긴 ‘제석굴설법부조상’, 불두만 낚는 스루고, 쿠산 왕조의 카니슈카왕 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여래 입상이 그려진 금화’를 비롯한 각종 동전들, 기원전 작품으로 추정되는 낙타모양토기 등 90여점의 해외 유물이 전시된다. 세운 스님은 “간다라와 티베트 불교미술이 우리나라 불교예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조계종 불교도서전 개최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이하 불출협)가 책 읽는 불자문화 확산과 ‘사찰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 전개를 위해 ‘제 1회 불교도서전’을 개최한다. 도서전은 5월 1~6일 조계사일주문 앞에서 진행된다. 이번 도서전은 불출협 15개 회원사가 중심이 돼 550여종의 불교관련 도서를 전시·판매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신간은 일반서점보다 약 20%, 재고도서는 약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불서 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은 전액 사찰도서관 건립을 위해 사용된다. (02)2011-1770 김강진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이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이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KM (주)경인메카트로닉스 NAVER 검색엔진 마이로봇

## 불기2552(2008)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 및 포살에 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2(2008)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들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결계신고**
  - 신고 일 : 불기 2552(2008)년 5월 10일(토, 음력 4. 6) ~ 5월 19일(일, 음력 4. 15)
  - 신고장소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할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 신고방법
    -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 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종 관할 하에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계 일 전 10일부터 결계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 서식3>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계 일 전 10일부터 결계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 포살**
  -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한다)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각 교구본사 관할 공할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 포살참여 예외
    - 가. 승남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스님
    - 나. 결계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 라. 결계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나·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 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계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 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시행령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서식>은 중년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안내책자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2(2008)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